

회사/연구소/기관 동정

◎◎ 셀바이오텍 ◎◎

덴마크 브로스테사에 비타민 공급 및 신제품 개발 박차

바이오벤처기업인 셀바이오텍 (대표 정명준, www.cellbiotch.com) 이 덴마크 브로스테사에 비타민 A 팔미테이트 21억2천8백만원 정도의 물량을 공급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4월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출(86억8천만원)의 24.5%에 이르는 것이며 셀바이오텍은 이번 계약체결로 올해 1백40억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로스테사는 비타민A 팔미테이트를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기아민 구호를 위한 프리믹스 원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명준 사장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과 경쟁해서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며 “앞으로 브로스테사를 통해 UNICEF에 비타민 B와 유산균도 공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셀바이오텍은 북유럽 지역 슈퍼마켓 및 건강식품 체인에 유산균 제품 납품을 위해 현재 다국적 기업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플랑크톤에서 추출한 아스타산틴, 광우병이 없는 초유, 합성이 아닌 아세로라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 C 등 유럽 업체들이 상용화에 성공한 기능성식품원료를 독점 공급 받는 계약을 추진 중이다.

셀바이오텍은 2004년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기존 수

출선인 유럽과 일본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제품 개발 및 판매 독점개발을 체결한 덴마크 브로스테(BROSTE)사와 스페인 쿠라레사를 통해 유럽 기능성 식품시장을 적극 공략기로 했다. 셀바이오텍은 지난해 11월 북유럽 건강기능식품메이저 회사인 덴마크 브로스테사와 기술 및 브랜드 제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셀바이오텍은 이 계약으로 브로스테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유럽 기능성식품의 프리믹스 시장 진입이 용이해진 것으로 보고 다양한 제품군에 필요한 유산균 원말 및 기타 프리믹스 사업에 필요한 기능성 원료를 조달할 계획이다.

프리믹스란 비타민, 유산균, 아미노산 등을 이용해 기능성 과자와 비상식량, 전쟁구호품 등을 만들기 위한 기능성 원료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이들 원료는 이미 유럽에서 임상 실험을 마친 상태로, 헬리코박터균으로 손상된 위벽치료 및 남자들의 정자수의 증가로 인한 불임치료, 어린이들의 면역력 증강과 성장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로스테사는 이 계약에 따라 셀바이오텍의 유산균 관련 제품과 완제품을 기존 거래선인 핀란드,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 등지에 독점 공급하게 된다.

셀바이오텍은 또 지난해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일본 및 유럽등지의 IR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셀바이오텍은 외국인 지분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해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IR 작업을 진행 중이며, 수출과 연계된 상호출자 및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 주식매입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 웰빙(Well-Being) 시대에 맞아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증강시킨 유산균 신제품을 출시, 병원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등 매출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발된 제품들에 대한 임상실험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인증 받을 수 있는 유산균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셀바이오텍은 HACCP, BGMP, ISO9001, KOSHER 등의 인증을 받는 등 수출증대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5년 전부터 국제 인증수여 작업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셀바이오텍은 현재 웨미리마트를 통해 독점 공급되고 있는 '바디튼'을 향후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공동 브랜드작업을 통해 약국체인, 할인점, 백화점등으로 마케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한미 약품(주) ◆

유럽시장 공략 본격화

한미약품이 유럽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한미약품(대표:민경운)은 최근 항생제「세프트지딤」이 국내 최초로 영국,독일 등 유럽국가 2개국으로부터 판매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기존의 항생제「세프트리아손」,「세포탁심」과 더불어 총 3개 제품의 유럽판매 승인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유럽시장에 진출한 국내 제약 기업들 중 최다 품목 보유라고 말하고 있다.

항생제「세프트지딤」은 금년 2/4분기 중 유럽 시장에 발매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한미약품은 연간 400만불~500만불의 매출을 유럽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제품은 퍼스트 제너릭 제품(First Generic Drug)이라 현지의 주목도가 더욱 높는데, 이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만료 후 유럽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된 제너릭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프트지딤」뿐 아니라 그 동안 한미약품이 유럽시장에 판매해 온 항생제「세프트리아손」,「세포탁심」도 모두 퍼스트 제너릭 품목이었다.

한미약품은 그 동안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시장에서도 퍼스트 제너릭 제품전략으로서 시장 공략을 꾸준히 해왔으며 금번「세프트지딤」의 유럽시장 판매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회사측은 “유럽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보건성(우리나라 식약청과 같은 기구)의 엄격한 국내 현장실사를 무사히 통과해야 한 후 판매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진입장벽이 높지만 유럽시장은 판매승인만 받게 되면 동남아, 남미 등 타 시장에 비해 의약품 가격을 2~2.5배 정도는 높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항생제 「세프트리아손」(99년),「세포탁심」(99년),「세픽심」(2003년),「세프트지딤」(2003년) 등 국내 제약업체로는 최다인 4품목에 걸쳐 이미 유럽전체가 인정을 하는 COS(유럽약전적합인증서)를 획득한 상태다.

이 중「세프트리아손」,「세포탁심」은 지난 99년 유럽국가 판매 승인을 받아 현재 유럽 10여개 국에 걸쳐 판매해오고 있으며 이번「세프트지딤」의 경우도 영국,독일 뿐 아니라 프랑스,이태리 및 스페인 등에서도 추가로 판매허가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2003년에 COS를 이미 획득한「세픽심」에 대해서도 올 해 안에 유럽국가 판매 승인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유럽 시장에서의 한미약품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미약품은「세프트지딤」의 유럽국가 판매 승인 획득과 함께 「세픽심」의 추가 진출 등으로 유

립시장에서의 매출증가가 기대돼 올해 4,000만 불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지니스생명공학(주) ◆ ◆

미국SBIR진출지원사업 선정

전북 전주시 장동 전북생물벤처센터에 위치한 지니스생명공학(주)(<http://jinisbio.com> 대표이사: 김현진)은 생명공학을 통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이념하에 2000년 8월 30일 설립된 생명공학 전문기업이다.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로는 “저콜레스테롤 계란(Low cholesterol Egg)”의 사업화를 이끈 저콜레스테롤 동물성식품 생산기술로 지니스생명공학(주)이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세계 최초로 제품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콜레스테롤 저하 미생물 배양 및 발효기술, 저콜레스테롤 계란 생산용 사료첨가제 생산기술, 저콜레스테롤 육제품 생산용 사료첨가제 생산기술 등의 원천기술의 산업재산권은 한국특허, 미국특허와 국제 PCT특허로 보호되고 있으며 미국으로의 기술수출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저콜레스테롤 동물성식품 생산기술의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지니스생명공학(주) 부설연구소가 주관하여 수행한 결과가 국제학회지인 Poultry Science에 게재 결정되어 5월에 출판될 예정이다.

지니스생명공학에서 개발한 저콜레스테롤 계란 생산용 사료첨가제 및 이를 이용한 저콜레스테롤 계란의 사업화는 지난 1월 전국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개발사업 중 100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 특히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상품화로는 유일한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한국바이오벤처협회가 주관한 해외전시지원사업지원업체로 선정되어 5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Vitafoods International 2004 박람회 전시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되었다. 세계 최대의 기능성식품 박람회로 꼽히는 Vitafoods International 2004에 한국바이오벤처협회, 셀바이오텍 등 7개 업체와 같이 참가하는 지니스생명공학(주)은 CLS 전시홍보하여 기능성식품 주시장인 유럽에 저콜레스테롤 계란 생산용 사료첨가제를 직접 수출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2004년 4월부터 1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한 미국SBIR 진출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미국SBIR 진출지원사업이란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 자금확보 및 성공적인 미국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미국SBIR 프로그램 신청 준비단계부터 선정시까지 자금지원, 컨설팅제공, 현지법인 설립, 워싱턴 D.C.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등을 지원하는 미국진출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이다.

특히 미국SBIR 프로그램은 연방기관이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 초기 R&D 자금부터 제품화단계까지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혁신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R&D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36%도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었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SBIR 진출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BT분야의 지니스생명공학(주)를 비롯해 넥스젠, 메시톡스 등 7개사, IT분야의 휴쳐인터넷, 인투텍, 맥스소프트 등 6개사 등 첨단기술 보유업체로 구성됐다.